

# 을유년(乙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飛上의 나래를 펼치는 한해 될 것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多事多難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2005년도를 맞아 포천시민과상공인 여러분에게 지면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國內外的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04년 甲申年을 뒤로하고 2005년도 乙酉年 년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雄大한 장담의 새벽 울음소리는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 희망과 기쁨을 주는 첫 출발로 우리 포천시 지역주민과상공인들에게는 날로 발전이 이어져 飛上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포천상공회의소는 2004년도에 아쉬움과 어려웠던 점을 補充하여 2005년도에는 지역발전과 상공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알아서 펼치는 卓上空論에서 발로 뛰면서 隘路要道와 苦衷을 聽取, 관련부처에 건의와 집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기업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昨今の 경기 흐름으로 보아,

환을 하락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장애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만연하고 있지만 지나친 비판론보다는 조심성 있는 낙관론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으로 어려운 시점에 포천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초창기 상공회의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단체 및 상공인들의 단합된 힘과 협조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乙酉年 년의 해를 맞아 닭처럼 부지런한 한 해가 되시어 雄飛의 나래를 펼치실 것을 다시 한번 祈願하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指導와 助言을 부탁드립니다 신년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 문화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어느덧 갑신년 한 해도 저물고 희망찬 을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문화가족 모두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심과 아울러 화합되는 모든 바람이 성취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문화원에서는 제5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포천메나리' 민속놀이로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처음으로 문화학교를 개설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토문화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소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계획된 각종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대과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 연구 및 자료의 체계화, 지역문화행사 및 교육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문화의 향기와 뿌리가 있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지도층인사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특히 포천신문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 선도와 문화 예술 및 교양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어 활기차면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천시민을 위한 충실한 대변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향토색 짙은 생동감 넘치는 양질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바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원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 기정에 민복이 깃드시고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신문 위상, 발전에 큰 획 그은 한해



**신현섭**  
지역신문 종합회장

대망의 2005년 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맞는 새해 아침이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지역과 지역신문의 역할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의 시작을 포천시민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포천신문과 함께여서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옵니다.

시상하는 포천시민과 지역신문 여러분!

포천신문은 1990년 창간 이래 15년이 지난 세월동안 포천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론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은 지역신문 위상과 발전을 위해 커다란 획을 그은 해였습니다. 국회에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 통과되었고, 그간 불공평하게 대우받던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을 이룬 것입니다. 이는 포천신문을 더불어 전국의 지역신문들이 정론의 길을 걸어가는 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善盡甘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2004년은 경제적·심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혜를 발휘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민족이며 포천시민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는 포천신문과 함께 지역신문들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문, 웃음과 감동을 주는 지역신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향군의 역할과 위상을 높인 한해



**이광호**  
포천시 재향군인회장

친애하는 2만5천여 포천시 향군 회원 여러분! 대망의 乙酉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瑞光 가득한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회원동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복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특정한 국 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지난 甲申年은 어느해 보다 多事多難했던 한해였습니다.

대북화해 협력정책이 부진한 가운데 어려운 경제난과 주한미국 철수, 이라크 파병, 과거사 진상조사, 보안법폐지 주장 등 국내외적으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한 해로 기억됩니다.

이에 우리 향군은 북핵개발저지, 주한 미군철수 반대 등 3.1절 백만 국민대회에 포천시회원 220여명이 참석하였고 10월4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보안법 폐지반대 국민대회에 230여명이 참석하는 등 국가안보정책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보의 제2보

루로서 향군의 역할과 위상을 국민에게 심어준 보람 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포천 재향군인회 2만5천여 회원들은 금년에도 衛國修身 精神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지리 잡을 수 있도록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나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 포천시 향군은 조직의 精銳化와 親睦謀와 회원의 福祉增進을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포천신문 독자 여러분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생활체육참여 통해 희망찬 한해 되길



**박일서**  
포천시 생활체육협의회장

존경하는 생활체육호인 여러분! 그리고 종목별 관계임원 여러분! 꿈과 희망에 가득 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중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서민 경제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계층간의 화합을 이루는 율유년 역할을 하는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포천은 힘차게 도약하여 생활체육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광복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성공적인 대회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위상을 경기도에 알리고 서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민의 화합을

이룬 대회였습니다.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 주신 동호인 및 관계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종목별 관계임원 여러분! 2005년 새해에도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보다는 더욱 빠르고 다양한 변화가 전개될 것입니다. 앞서가지 않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21세기 여가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이자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을유년 새해에도 모든 소망을 다 이루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닭의 덕' 이룩되는 새해를 기원하며



**김항중**  
포천신문 지면위원

'수필가 김창중의 포천이야기'도 벌써 120회를 맞았으니 4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표명하여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리며 향후 300회를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모든 소망을 다 이루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고향 포천의 왕방산을 비롯하여 수원산, 죽연산, 국망봉, 보장산등 명산이 더욱 푸르고 높이 솟아 그 정기를 내 뿜고 한내천, 영평천 맑은 물이 힘차게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인 것을 다른 고장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땅을 일하며 조상을 받드는 일에 힘쓰시는 고향분들을 만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며 '바로 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며 뿌리가 이곳에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푸른산, 맑은물을 지키고 조상의 땅에다 곡식 심고 조상님 모시

는 고향의 생활은 옛날 '육할상제(하느님)도 부러워 하는 생활이라고 옛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향에 찢든 대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고향을 지키는 분들의 행복한 생활을 동경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고장보다도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숨은 독자들이 많은 내 고향, 땅을 일하고 묵묵히 고향을 지키는 숨은 농·축산가들이 많은 내 고향,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세대들이 희망의 꿈을 키우는 희망찬 내 고향, 21세기의 한국을 빛낼 한반도의 중심축 내 고향 포천의 앞날에 하늘의 축복과 조상님들의 보살핌을 기원해 봅니다.

살기 좋아 인구가 늘고 인신 좋아 오대 살림살고 싶은 내 고향 포천, 새해가 밝으면 '닭의 덕'을 따라 더욱 잘 사는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해가 되길



**석혜승**  
포천경찰서 경순실장, 보문정사 주지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유난히도 실감나는 한해였습니다.

을유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닭이 워낙 싸움을 좋아하는 동물인지라 혹시 다투는 일들이 많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닭이라는 동물은 '문(文)무(武)용(勇)인(仁)신(信)'이라는 다섯 가지의 덕을 가졌다하여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집니다. 머리의 뿔은 문을 상징하며, 발차기를 잘하므로 무의 성질을 갖추었고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니 용의 덕성 또한 갖추었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자식과 무리들을 불러 함께 먹이니 인의 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일러 주므로 신의 덕까지 가진 것입니다.

덕성이라는 것이 한 가지도 가지기가 힘든 것인데, 하물며 닭은 5가지나 가졌으니 길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 을유년에는 이 닭이라는 동물의 다섯 가지 덕목 중에 '인'과 '신'이라는 덕목만이

라도 새길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각 나라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가 1·3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23위,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등은 40위권이라고 하니 경제적인 풍요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전회회복이라는 말이 이듯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을유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람보다는 작은 소망이 이루어져 행복해지는 그런 새해가 되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쾌적한 사회환경 만들도록 노력해야



**윤순옥**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

찬란한 일출보다 석양의 낙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한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 때문인지 가슴 가득히 노을빛이 물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한해 포천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한해를 시민들과 함께 보낸 포천신문사에 감사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시작되는 각오의 뜻

을 남다르게 다짐하며 자신과의 약속에서 보람된 결과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 때면 어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때로 기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저물어 가는 갑신년의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좋았던 일들은 마무리 하는 끝자락에서 웃음으로 나누며 두 배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한 겨울이 열리는 피지날 폭동한 땅 때문에 겨울 난방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따뜻한 날씨덕분에 열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존층 파괴와 사막화, 자원고갈 등 점차

활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징후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지나치고 방관 할 수만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 전에 없이 포천 하늘이 맑고 투명한 것 같습니다. 포천시민 모든 분들이 환경을 지키고 아가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 우리의 주변도 차츰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을유년 새해에는 조금 더 마음을 내서서 쾌적한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포천신문사에서 구석구석 환기 비취주시고 아름다운 일에는 박수 보내시고 힘되고 언짢은 소식에는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깨우침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지역신문의 선구자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답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길



**이문환**  
포천시 가족·성상담센터 소장

희망찬 을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해바다에 붉게 떠오르는 저 태양과 같이 2005년 새해가 포천신문 가족과 구독자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주위에서는 인명을 경시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현아양 살인사건과 그로 인하여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심하던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둔 일은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매체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성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고 풀이할 수 없는 피해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된 사회가 되려면 서로가 '나 내 탓이요'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항상 배려하고 가족 내에서는 대화의 장을 열어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회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혼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물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문제나 성매매 및 원조교제 등의 사회문제들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미래도 있으며, 질 높은 교육 활동이 없이 차원 높은 인간 행복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꿈과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올바른 성의 가치관 교육과 자신을 사랑하고 나보다는 타인을 존중하며 서로 개개인이 다름을 인식하는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가 펼쳐지는 2005년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봅시다.

## 축산인 권익과 지위향상에 매진할 것



**양기원**  
포천 축협 조합장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 해가 지나고,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한일 FTA,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등과 각종 원자재값 상승으로 우리 농민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이 있었습니까.

무분별한 개방 농정에 대해 400만 농민들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민족농업 사수의 가치를 내걸고 반대하였지만, 정부는 끝내 농민과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리고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여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경제는 천체의 눈물을 허덕이며, 우리 민생 현안은 위축되고 개방농정에 대한 불안감은 그대로 농촌경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포천시와 포천축협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위치를 살리고자 2005년부터 새롭게 포천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가공처리 할 수 있는 육가

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가공 사업을 통해서 축산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포천시와 포천축협이 위생적으로 가공처리하여 포천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축산인에게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포천시의 축산인에게도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포천축협의 조합장으로서, 항상 축산인의 권익과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포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포천신문도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포천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